

## 여대생의 모발건강관리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조성선 · 문인옥\*

이화여자대학교 사범대학 보건교육과 · 이화여자대학교\*

### A Study on Factors Effecting the Hair Care of Female University Students

Cho, Sung-Sun · Moon, In-Ok\*

Department of Health Education, Ewha Womans University · Ewha Womans University\*

#### ABSTRACT

Female university students generally have a lower intake of nutrition compared to other age groups due to their adverse interests in their appearance. Drinking, smoking, too much weight control, accumulation of psychological and physical stress are causes of inadequate diet. The result is deterioration of hair health. Establishment of good diet and hair care is the foundation of a healthy hair in adulthood. For this reason, there is a great need for a healthy hair care.

The data from a questionnaire survey was analyzed with 800 female undergraduate students responding. Seventeen universities were included in the study, 8 of which were from Seoul, 6 from other large cities and 3 from smaller towns.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correlations of these factors and to provide preliminary data for developing an effective hair care education program.

Results include the following:

1. Knowledge score of hair care based on general characteristics were higher for students in larger cities compare to small cities or regions. Also, students in higher academic year, more allowance, interest in their appearance and family income showed higher knowledge in this field. These factors had meaningful effect on the statistics of this study.
2. Attitude score towards hair care based on general characteristics were higher for students in larger cities compare to small cities or regions. Also, students in higher academic year, more allowance, interest in their appearance and family income showed higher knowledge in this field. These factors had meaningful effect on the statistics of this study.
3. Behavior score towards hair care was higher for students with greater family income, allowance, interest in appearance. These factors had meaningful effect on the statistics of this study.

4. The correlation study between knowledge, attitude and behavior showed that higher the knowledge and attitude, better the behavior.
5. The analysis of factors effecting hair care behavior showed that interest in health, acknowledgement of current hair condition, total family income were a viable factor in predicting hair care behavior. The predictability of regression model is 38.9 %( $R^2$ )

Therefore, in order to maximize the hair care behavior, consistent and systematic study should be carried out to develop an effective education program to improve health interest.

## I. 서 론

### 1. 연구의 필요성

오늘날 사회 경제적 발전으로 말미암아 생활 수준이 향상되어 식생활의 변화가 생기고 의학기술의 발달로 평균수명이 증가함에 따라 건강에 대한 의식변화와 기대수준이 향상되었다. 미의 개념이 모든 여성에게 일반화 되어감에 따라 신체의 내적인 건강뿐만 아니라 외적인 건강과 아름다움에 대한 기대와 욕구가 강해졌다. 모발의 물리적, 화학적 미용행위의 빈도가 높아지게 됨에 따라 모발건강은 더욱 나빠지는 결과를 초래하였다(김순희, 1999).

또한 여성에게 일어나는 생리, 임신 폐경등 호르몬의 변화와, 단백질, 철분, 요오드, 아연, 비타민의 부족, 비타민 A의 과잉 등의 영양의 불균형과 빈혈, 당뇨병, 갑상선기능항진, 결핵 등의 내분비질환 그리고 스트레스로 인한 원형탈모, 미만성 탈모, 남성형 탈모, 두피건선, 두피백선, 건선 비강진(비듬) 등의 두피질환(Burton 등, 1992)과 두피에 접촉하는 머리염색약, 파마약, 그리고 모발용 제품(헤어 무스, 스프레이, 토닉, 젤), 세정제(샴푸, 린스) 그 밖에, 모자(염색제제 혹은 안감에서 사용되는 제제), 금속장신구(머리핀), 치료제로 쓰이는 약제 등도 알레르기성 접촉두피염을 일으키는 흔한 항원으로 두피질환의 원인이 될 수 있다(허충림, 1992).

여대생들의 공통된 특징은 여대생들이 외모에 대한 관심도가 지나쳐 식품의 섭취패턴 및 영양

소 섭취량이 타 연령층에 비해 전반적으로 불량하고(계승희, 1992; 김주연 등, 1987; 오경원, 1991; 이기열, 1980), 음주와 흡연, 마른 체형에 대한 관심으로 지나친 체중조절, 심리적 신체적 스트레스의 누적 등은 부적합한 식생활의 원인으로(류은순, 1993; 원향례, 1995) 모발건강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여성들의 미용에 대한 의식수준이 높아지고 모발의 미적인 측면에 앞서 모발의 건강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함으로 아름다운 헤어스타일 연출보다 모발의 건강유지에 더 중요성을 두고 있지만(곽형심, 1998) 모발건강관리에 대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기존의 연구들은 대부분 미용업 종사자들에 대한 연구들이었고 모발의 건강적 측면보다는 모발시술에 대한 태도나 소비 행동에 관한 연구들로서,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한 모발건강에 대한 연구가 거의 없는 실정이다. 특히 여대생의 모발건강관리 행위와 관련된 연구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여대생의 경우 모발관리를 시작하는 시기로 외모에 대한 관심과 취업 등의 이유로 모발시술빈도가 많아지고 또한 건강한 생활습관 확립과 모발건강관리는 성인 이후의 건강한 모발의 근원이 되므로 여대생의 모발건강관리의 필요성이 매우 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여대생을 대상으로 모발건강관리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여 건강증진 행위를 촉진하는 효과적인 모발건강관리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 2. 연구목적

본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여대생의 일반적 특성, 건강특성, 모발관련 특성, 모발건강관리에 대한 지식, 태도, 행위를 파악한다.
2. 모발건강관리에 대한 지식, 태도, 행위와의 관련성을 파악한다.
3. 모발건강관리 행위와 관련된 요인의 영향력을 파악한다.

## II. 연구대상 및 방법

### 1. 연구대상 및 측정도구

교육부<교육통계연감 99>을 토대로 전국 4년제 대학 여자대학생의 지역별 비율을 고려하여 서울시에 위치한 4년제 대학에 재학중인 8개 대학교 여대생 428명(57.3%)과 인천광역시, 광주

광역시, 대전광역시 대구광역시 소재 4년제 6개 대학교에 재학중인 여대생 245명(29.3%), 교육도시인 중소도시 순천시, 진주시, 수원시에 위치한 4년제 3개 대학교에 재학중인 여대생 127명(13.4%)등 17개 대학교 총 800명을 편의 추출하였다.

조사도구는 연구자가 국내외 관련 문헌을 참고로 작성한 설문지로 전문가들로부터 내용타당도를 검증받고 예비조사를 통해 신뢰도를 측정한 후 본 조사에 사용되었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설문지의 내용은 <표 1>과 같다.

### 2. 자료분석방법

모발건강관리에 대한 지식 문항은 옳게 응답한 경우 각 문항마다 1점을 부과하여 26점을 만점으로 하였다.

모발건강관리에 대한 태도는 Likert식 5점 척도를 이용하여 “매우 그렇다” 5점, “그렇다” 4점,

<표 1> 연구내용

조사 항목	내 용	문항수	Cronbach's $\alpha$
일반적 특성	학년, 대학소속, 출신소재지, 가족총수입, 한달 용돈, 외모의 만족도, 외모의 관심도	7	
건강특성	건강상태, 건강관심도, 최근 1년간 질병경험	3	
모발관련특성	모발상태, 모발고민, 모발건강관리 정보습득경로, 두발제품 부작용 유무, 최초 퍼머 또는 염색 시술시기	5	
모발건강관리에 대한 지식	모발건강의 유해요인 모발건강을 위한 생활습관 모발 관리	26	.7011
모발건강관리에 대한 태도	모발건강관리에 대한 관심 모발건강을 위한 생활습관 모발건강관리에 대한 인식	19	.8307
모발건강관리에 대한 행위	모발관리습관 안전한 모발시술 행위 모발건강을 위한 생활습관 두발제품 사용 및 방법	21	.7944
계		81	

“보통이다” 3점, “그렇지 않다” 2점,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으로 점수화 하였다.

모발건강관리 행위는 “항상 그렇게 한다” 5점, “대체로 그렇게 한다” 4점,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다” 3점, “대체로 그렇게 하지 않는다” 2점, “전혀 그렇게 하지 않는다” 1점으로 점수화 하였다.

회수된 설문지 총 800부는 SPSS Win 10.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고, 일반적 특성에 따른 모발 건강관리에 대한 지식·태도 및 모발 건강관리행위의 차이검증은 t-test, 분산분석을 이용하였으며, 모발건강관리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다중 회귀 분석(Multiple Regression)을 사용하였다.

### Ⅲ. 결과 및 고찰

#### 1. 연구대상자의 특성

##### 1) 일반적 특성

일반적 특성은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응답 여대생의 학년별 특성은 ‘1학년’이 24.5%, ‘2학년’ 22.8%, ‘3학년’ 23.4%, ‘4학년’이 29.4%로 비교적 학년별로 골고루 분포되었다. 계열별로는 ‘인문사회계열’이 27.3%, ‘경상법대계열’이 17.5%, ‘자연공학계열’이 30.9%, ‘예체능 계열’이 7.8%, ‘의약학계열’이 16.6%이었다. 출신고교소재지는 ‘대도시’가 65.3%, ‘중소도시’ 27.4%, ‘농어촌’이 7.4%로 절반이상이 대도시이었다.

가족 총수입은 ‘100만원 미만’이 3.8%,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이 27.1%,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33.3%, ‘3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 17.6%, ‘400만원 이상’ 18.4%이었다. 본인의 한달 용돈은 ‘10만원 미만’이 5.1%, ‘10만원 이상 20만원 미만’ 34.4%, ‘20만원 이상 30만원 미만’ 34.3%, ‘30만원 이상 40만원 미만’ 17.3%, ‘40만원 이상’이 9.1%이었다.

외모에 만족하는가를 묻는 질문에서 ‘만족한다’

<표 2> 일반적 특성

항 목	구 분	명(%)
학년	1학년	196( 24.5)
	2학년	182( 22.8)
	3학년	187( 23.4)
	4학년	235( 29.4)
대학 소속	인문사회계열	218( 27.3)
	경상법대계열	140( 17.5)
	자연공학계열	247( 30.9)
	의약학계열	133( 16.6)
	예체능계열	62( 7.8)
출신고교소재지	대도시	522( 65.3)
	중소도시	219( 27.4)
	농어촌	59( 7.4)
가족 총수입	100만원 미만	30( 3.8)
	100~200만원 미만	217( 27.1)
	200~300만원 미만	266( 33.3)
	300~400만원 미만	141( 17.6)
	400만원 이상	146( 18.4)
한달 용돈	10만원 미만	41( 5.1)
	10~20만원 미만	275( 34.4)
	20~30만원 미만	274( 34.3)
	30~40만원 미만	138( 17.3)
	40만원 이상	72( 9.1)
외모에 대한 만족도	매우 만족한다.	41( 5.1)
	만족한다.	231( 29.9)
	보통이다.	415( 51.9)
	만족하지 않는다.	102( 12.8)
	매우 불만족한다.	11( 1.4)
외모에 대한 관심도	매우 관심이 많다.	189( 23.6)
	관심이 있다.	409( 51.1)
	보통이다.	185( 23.1)
	관심이 없다.	16( 2.1)
	전혀 관심이 없다.	1( 0.1)
	계	800(100.0)

34.0%, ‘보통이다’ 51.9%, ‘만족하지 않는다’ 14.2%였고 외모에 대한 관심도는 ‘관심이 많다’가 74.3%, ‘보통이다’ 23.1%, ‘관심이 적다’가 2.2%로 여대생은 외모에 관심이 많았다.

##### 2) 건강특성

건강특성은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건강

〈표 3〉 건강 특성

항 목	구 분	명 (%)
인지된 건강상태	건강하다.	461( 57.7)
	보통이다.	251( 31.4)
	건강하지 않다.	88( 11.1)
건강에 대한 관심도	관심이 많다.	438( 54.7)
	보통이다.	326( 40.8)
	관심이 적다.	36( 4.5)
최근 1년간 질병경험	없다.	237( 29.6)
	있다.	563( 70.4)
	당뇨병	7( 0.9)
	생리불순	108( 13.5)
	갑상선 질환	17( 2.1)
	빈혈	149( 18.6)
	결핵	4( 0.5)
	여드름	160( 20.0)
	피부병	33( 4.1)
	비타민 과잉 및 부족으로 인한 질병	24( 3.0)
	기타	61( 7.6)
계	800(100.0)	

상태를 묻는 항목에서 11.1%만이 건강하지 않다고 응답했는데, 이는 대학 신입 여대생 가운데 10%가 건강상태가 나쁘다고 답한 이명학 등(1994)의 조사결과보다 약간 높은 수치이고 4학년 여대생을 대상으로 한 조선진(1997)의 조사결과(17.7%)보다 낮은 수치이며, 서울시내 여대생 가운데 11.3%가 건강상태가 나쁘다고 답한 박정란(1999)의 조사결과와 비슷한 수치이다.

연구대상자가 건강에 대해 가지고 있는 관심 정도는 ‘관심이 많다’ 54.7%, ‘보통이다’ 31.4%, ‘관심이 적다’ 4.5%로 응답 여대생의 86.1%가 건강에 대해 보통이상의 관심이 있다고 대답하였다. 최근 1년간 질병경험에서 여성이 일반적으로 질병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생리불순, 빈혈, 여드름을 질병경험률에서 제외시키면 18.3%로 조선진의 인지된 건강 상태율과 비슷한 결과로 나타나지만 실제로 이들 3개의 질병은 특히 모발건강 관리와 관계된 질병이라고 선행연구에서 나타났

기 때문에 본 연구에 포함시키면 질병경험률이 70.4%로 나타났다.

### 3) 모발건강관련특성

모발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있는 응답자는 92.9%로 대부분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발의 고민내용을 보면(복수응답) 〈표 4〉과 같으며 주로 ‘모발이 거칠고 갈라짐’ ‘머리가 많이 빠져 숱이 적음’ ‘윤기가 없고 푸석거림’으로 나타났다.

## 2. 모발건강관리에 대한 지식

모발건강관리에 대한 지식 수준은 13점에서 18점까지의 점수를 받은 응답자가 62.8%로 가장 많았고 12점 이하의 낮은 점수에서는 21.8%, 19점에서 26점까지는 10.5%의 응답자 분포로 나타났다. 전체 지식 수준의 평균점수는 14.56점이었다(표 5). 각 문항에 대한 정답률을 보면 ‘스트레스는 탈모와 비듬의 원인이 된다’는 문항에서 가장 높은 정답률(92.4%)을 보였고, ‘한번 손상된 모발이라도 회복이 가능하다’는 항목에서는 26.0%로 가장 낮았다.

### 일반적 특성에 따른 모발건강관리에 대한 지식

일반적 특성에 따른 여대생들의 모발건강관리에 대한 지식 수준은 〈표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학년에 따른 모발건강관리에 대한 지식수준은 4학년이 15.07점으로 가장 높았고, 1학년이 14.14점으로 가장 낮아 유의한 차이를 보여 학년이 높을수록 모발건강관리에 대한 지식수준이 높았다( $p < 0.05$ ). 출신교고 소재지에 따른 모발건강관리에 대한 지식 수준은 ‘대도시’가 14.73점으로 가장 높았고 ‘중소도시’가 14.42점, ‘농어촌’ 13.59점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p < 0.05$ ). 학년에 따라 지식 수준이 높아지는 것은 취업 및 결혼과 관련된 사회적 요구로 인해 모발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가되는 것으로 생각되며 대도시는 다양한 경로를 통해 모발건강에 대한 많은 정보를 습득

〈표 4〉 모발관련특성

항 목	구 분	명(%)
인지된 모발상태	좋은 편이다.	243( 30.4)
	보통이다.	290( 36.3)
	나쁜 편이다.	267( 33.4)
모발에 대한 고민*	없다.	57( 7.1)
	있다.	743( 92.9)
	모발이 거칠고 갈라짐	597( 74.6)
	머리가 많이 빠지고 술이 적음 <sup>1)</sup>	489( 61.1)
	윤기가 없고 푸석거림	329( 41.1)
	곱슬머리	258( 32.3)
	백모 및 부분탈색	92( 11.5)
	비듬	80( 10.0)
탈모 <sup>2)</sup> 및 원형탈모 <sup>3)</sup>	43( 5.4)	
모발건강관리에 대한 정보 습득원	피부과 의원	16( 1.9)
	미용실	411( 51.4)
	친구, 가족	160( 20.0)
	신문, 잡지	100( 12.5)
	대중매체, 인터넷	52( 6.5)
	없다.	62( 7.8)
퍼머나 염색을 처음 한 시기	중학교 이전	142( 17.8)
	중·고등학교 시절	226( 28.3)
	대학 입학 후	428( 53.5)
	한번도 한적 없다.	4( 0.5)
두발제품 부작용	있다.	163( 20.4)
	없다.	637( 79.6)
계		800(100.0)

\* 모발에 대한 고민 내용으로 복수응답

- 1) 하루에 100개 이상 빠질 경우, 2) 병적으로 1)보다 많이 빠질 경우
- 3) 땀질해야 할 정도로 부분적으로 흰하게 빠지는 경우

〈표 5〉 모발건강관리에 대한 점수표

점 수	명(%)
0~12	214(26.8)
13~18	502(62.8)
19~26	84(10.5)
계	800(100.0)
Mean±S.D.	14.56±3.17

할 수 있으므로 지식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고 사료된다. 가족 총수입에 따른 모발건강관리에 대

한 지식 수준은 '400만원 이상'이라고 응답한 여대생이 16.57점으로 가장 높았고 소득이 적을수록 지식 점수가 낮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 $p<0.001$ ). 본인의 한달 용돈 또한 '40만원 이상'이라고 응답한 여대생이 16.57점으로 가장 높았고 용돈이 적어질수록 모발건강에 대한 지식점수도 낮았고 통계학적으로 유의하였다 ( $p<0.001$ ).

외모에 대한 만족도에 있어 전반적으로 외모에 만족하는 경우가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 $p<0.001$ ), 외모에 대한 관심도가 많을수록 모발건강관리에 대한 지식점수가 높았다( $p<0.01$ ).

〈표 6〉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지식수준

n = 800

항 목	구 분	응답자수	Mean±S.D.	F
학년	1학년	196	14.14±3.08	3.55*
	2학년	182	14.32±3.09	
	3학년	187	14.58±3.00	
	4학년	235	15.07±3.17	
대학소속	인문사회계열	218	14.37±3.37	0.91
	경상법대계열	140	14.27±3.20	
	자연공학계열	247	14.73±3.25	
	의약학계열	133	14.83±2.92	
	예체능계열	62	14.63±2.50	
출신고교 소재지	대도시	522	14.73±3.27	4.02*
	중소도시	219	14.42±2.83	
	농어촌	59	13.59±3.34	
가족 총수입	100만원 미만	30	13.53±3.46	10.47***
	100~200만원 미만	217	13.88±3.26	
	200~300만원 미만	266	14.30±2.84	
	300~400만원 미만	141	14.76±3.09	
	400만원 이상	146	16.04±3.40	
한달 용돈	10만원 미만	41	14.10±3.69	8.66***
	10~20만원 미만	275	14.05±3.05	
	20~30만원 미만	274	14.47±3.13	
	30~40만원 미만	138	14.90±2.75	
	40만원 이상	72	16.57±3.58	
외모에 대한 만족도	매우 만족한다.	41	15.51±3.80	13.32***
	만족한다.	231	15.30±2.94	
	보통이다.	415	14.30±3.06	
	만족하지 않는다.	102	13.59±3.45	
	매우 불만족한다.	11	14.90±3.02	
외모에 대한 관심도	관심이 많다.	598	14.70±3.15	4.64**
	보통이다.	185	14.29±3.08	
	관심이 적다.	17	12.65±4.23	

\*p < 0.05, \*\*p < 0.01, \*\*\*p < 0.001

### 3. 모발건강관리에 대한 태도

모발건강관리에 대한 태도 19개 항목은 5점 척도로 측정하였고, 총 95점 만점에 최저 38점에서 최고 95점까지 분포하였으며 평균점수는 72.83점이었다.

#### 일반적 특성에 따른 모발건강관리에 대한 태도

일반적 특성에 따른 모발건강관리에 대한 태도

점수는 〈표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학년이 높을수록(p<0.01), 가족 총수입이 높을수록(p<0.001), 본인의 한달용돈이 많을수록(p<0.05), 외모에 대한 만족도가 클수록(p<0.05), 외모에 대한 관심이 많을수록(p<0.001) 모발건강관리에 대한 태도 점수가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4. 모발건강관리 행위

모발건강관리 행위는 건강행위를 촉진하는 모

〈표 7〉 일반적 특성에 따른 모발건강관리에 대한 태도

n = 800

항 목	구 분	응답자수	Mean±S.D.	F
학년	1학년	196	71.65±7.58	4.15**
	2학년	182	72.29±6.75	
	3학년	187	73.38±6.40	
	4학년	235	73.79±6.94	
대학소속	인문사회계열	218	72.36±7.23	0.357
	경상법대계열	140	72.95±6.65	
	자연공학계열	247	72.95±7.12	
	의약학계열	133	73.11±6.65	
	예체능계열	62	73.11±7.10	
출신고교소재지	대도시	522	73.20±6.97	2.61
	중소도시	219	72.36±6.99	
	농어촌	59	71.32±6.87	
가족총수입	100만원 미만	30	68.70±7.79	9.62***
	100~200만원 미만	217	71.46±7.39	
	200~300만원 미만	266	72.33±6.28	
	300~400만원 미만	141	74.04±6.41	
	400만원 이상	146	75.44±6.90	
한달 용돈	10만원 미만	41	70.76±6.41	3.17*
	10~20만원 미만	275	72.71±6.93	
	20~30만원 미만	274	72.09±6.83	
	30~40만원 미만	138	73.71±7.16	
	40만원 이상	72	75.64±6.72	
외모에 대한 만족도	매우 만족한다.	41	75.29±7.85	7.31**
	만족한다.	231	73.81±7.05	
	보통이다.	415	72.43±6.64	
	만족하지 않는다.	102	71.44±7.22	
	매우 불만족한다.	11	70.73±8.45	
외모에 대한 관심도	관심이 많다.	598	73.46±6.77	11.35***
	보통이다.	185	71.19±7.40	
	관심이 적다.	17	68.35±5.17	

\* p < 0.05, \*\* p < 0.01, \*\*\* p < 0.001

발건강행위를 알아보기 위하여 스트레스 해소, 규칙적인 생활, 영양섭취, 운동, 개인위생, 안전 행위, 금연·금주 등을 내용으로한 21개 항목으로, 5점 척도로 측정하여 총 105점 만점에 최저 37점에서 최고 91점까지 분포하였으며 평균점수는 61.77점이었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모발건강관리 행위

일반적 특성에 따른 모발건강관리 행위점수는

〈표 8〉와 같이, 가족의 총수입이 높을수록(p < 0.001), 본인의 한달용돈이 많을수록(p < 0.001), 외모에 대한 만족도가 클수록(p < 0.001), 외모에 대한 관심이 많을수록(p < 0.01) 모발건강관리에 대한 행위점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모발건강관리행위수준이 높을수록 외모에 대한 자신감과 자신의 외모를 가꾸는데 비용을 많이 소비한다고 사료된다.



〈표 8〉 일반적 특성에 따른 모발건강관리 행위점수

n = 800

항 목	구 분	응답자수	Mean±S.D.	F
학년	1학년	196	60.54±8.20	2.03
	2학년	182	62.52±8.68	
	3학년	187	61.65±8.47	
	4학년	235	62.31±9.68	
대학소속	인문사회계열	218	61.27±8.84	0.386
	경상법대계열	140	61.54±8.92	
	자연공학계열	247	62.08±8.87	
	의약학계열	133	61.92±8.26	
	예체능계열	62	62.50±9.91	
출신고교 소재지	대도시	522	62.00±8.98	1.418
	중소도시	219	61.70±8.62	
	농어촌	59	59.97±8.36	
가족 총수입	100만원 미만	30	54.73±8.08	12.03*
	100~200만원 미만	217	60.18±8.31	
	200~300만원 미만	266	61.31±8.10	
	300~400만원 미만	141	62.87±8.95	
	400만원 이상	146	65.32±9.36	
한달 용돈	10만원 미만	41	57.54±7.80	8.19*
	10~20만원 미만	275	60.42±8.72	
	20~30만원 미만	274	61.83±8.94	
	30~40만원 미만	138	63.49±7.76	
	40만원 이상	72	66.35±9.36	
외모에 대한 만족도	매우 만족한다.	41	63.92±10.68	13.23*
	만족한다.	231	63.84±8.74	
	보통이다.	415	61.04±8.52	
	만족하지 않는다.	102	59.43±8.61	
	매우 불만족한다.	11	60.73±7.48	
외모에 대한 관심도	관심이 많다.	598	62.45±8.93	7.67*
	보통이다.	185	59.93±8.01	
	관심이 적다.	17	57.76±10.95	

\* p < 0.05

### 5. 모발건강관리에 대한 지식, 태도 및 행위와의 관계

모발건강관리에 대한 지식, 태도 및 행위간의 상관관계에서 각 변수들 서로간에 모두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모발건강관리에 대한 태도와 모발건강관리 행위간의 상관계수가 0.455로 가장 높아 모발건강관리에 대한 태도 수준이 높을수록 행위도 잘 실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6. 모발건강관리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모발건강관리 지식, 태도, 건강에 대한 관심, 모발상태, 가족 총 수입, 본인의 용돈이 모발건강관리 행위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10〉과 같다.

〈표 10〉를 통해 추정된 회귀식은 다음과 같다.  
 모발건강관리 행위(Y) = 13.82 + 0.458(태도)

〈표 9〉 모발건강관리에 대한 지식, 태도 및 행위간의 상관계수

구 분	모발건강관리에 대한 지식	모발건강관리에 대한 태도	모발건강관리에 대한행위
모발건강관리에 대한지식	1.000		
모발건강관리에 대한태도	0.446*	1.000	
모발건강관리에 대한 행위	0.403*	0.455*	1.000

\* p < 0.01

〈표 10〉 독립변수가 모발건강관리 행위에 미치는 영향력

독립변수	B	$\beta$	R <sup>2</sup>	F
모발건강관리에 대한태도	0.682	0.458***		
모발건강관리에 대한지식	0.696	0.349***		
건강에 대한 관심	1.907	0.226***	0.389	56.74***
모발 상태	1.509	0.136**		
가족 총수입	0.751	0.171*		
본인의 용돈	0.566	0.111*		
상 수		13.82		

\* p < 0.05, \*\* p < 0.01, \*\*\* p < 0.001

+ 0.349(지식) + 0.226(건강에 대한 관심) + 0.136(모발상태) + 0.171(가족총수입) + 0.111(용돈)

위 회귀모형에 대한 예측력인 R<sup>2</sup>은 38.9%로, 이에 대한 F값은 56.74이고, P<0.001 수준이었다. 각 독립변수의 상대적 기여도를 보기위해 표준화된 베타값(B)을 비교해 보면 건강에 대한 관심 1.91, 모발상태 1.51, 가족 총 수입 0.75, 모발건강관리에 대한 지식 0.70, 모발건강관리에 대한 태도 0.68, 본인의 용돈 0.57의 순으로 종속변수를 설명하는데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결과 건강에 대한 관심, 인지된 모발상태, 가족 총 수입이 모발건강관리 행위를 예측하는데 중요한 변수로 파악되었다.

따라서 모발건강관리 행위를 극대화 시키기 위해서는 건강에 대한 관심을 증진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 I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4년제 대학에 재학중인 여대생을 대상으로 모발건강관리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해 봄으로써 건강증진 행위를 촉진하는 효과적인 모발건강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모발건강관리에 대한 지식의 평균점수는 14.56점(26점 만점)이었다.

가족총수입과 한달 용돈이 많을수록, 외모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외모에 대한 관심도가 높을수록, 학년이 높을수록, 출신고교 소재지가 대도시일 경우가 모발건강관리에 대한 지식 수준이 높았다.

2. 모발건강관리에 대한 태도의 평균점수는 72.83점 (95점 만점)이었다.

가족총수입이 높을수록, 외모에 대한 관심도가 높을수록, 학년이 높을수록, 외모에 대한 만족도가 클수록, 한달용돈이 많을수록 모발건강관리에 대한 태도 수준이 높았다.

3. 모발건강관리 행위의 평균점수는 61.77점 (105점 만점)이었다.

가족 총수입이 많을 수록, 본인의 한달 용돈이 많을수록, 외모에 대한 만족도와 외모에 대한 관심도가 높을수록 모발건강관리행위 수준이 높은 경향을 보였다.

4. 모발건강관리에 대한 지식, 태도 및 행위와의 관련성은 모발건강관리에 대한 지식이 높을수록, 모발건강관리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일수록 모발건강관리행위의 실천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5. 모발건강관리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요인은 '건강에 대한 관심', '모발상태', '가족 총수입', '모발건강관리에 대한 지식', '모발건강관리에 대한 태도', '한달 용돈'의 순이었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1. 모발건강관리에 대한 정보습득에 있어서 미용실에서 습득하는 경우가 높았으므로 올바른 정보를 전달하고 실천을 유도할 수 있도록 미용사들의 지식수준을 높이는 교육이 필요하고 피부과 의원에서 전문가에 의해 지식을 전달받았을 때 모발건강관리에 의한 태도 및 행위수준이 높았으므로 각 수준에 맞는 전문가에 의한 모발건강관리에 대한 교육이 체계적으로 실시되어야 하겠다.

2. 본 연구에서는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을수록 모발건강에 대한 지식, 태도, 및 행위의 수준이 높았으므로 건강행위를 증진하는 효과적인 모

발건강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행해져야 하겠다.

3. 우리나라는 아직 보건교육영역에서 모발건강관리에 대한 내용을 포함시키고 있지 않지만 삶의 질이 향상되고 모발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각종스트레스로 인한 조기 모발 탈락과 모발질환이 증가되어 신체의 일부분인 모발건강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므로 보건교육의 일환으로 모발건강교육이 이루어져야 하겠다.

## 참 고 문 헌

1. 강경희, 김한식(1999). 모발상식. 현문사.
2. 고혜정 : 흡연과 피부표면 수분과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1997.
3. 광형심 : 여성의 모발미용에 대한 의식 행태 조사연구, 석사학위논문, 경산대학교 보건대학원, 1998.
4. 국홍일 : 髮의 構造와 生理·脫毛의 分類, 醫藥情報 1986, 136(10), 45-49.
5. 국홍일 : 모발, 약국, 1990, 190(7), 75-78.
6. 국홍일 : 모발탈락과 탈모증 1, 약국, 1990, 191(8), 75-78.
7. 국홍일 : 모발탈락과 탈모증 2 피부병, 약국 1990, 192(9), 85-88.
8. 권대순 : 한국 미용문화의 변천과 소비 행태 연구, 석사학위논문, 단국대학교 경영대학원, 1999.
9. 김명주 : 모발 및 두피의 건강증진에 관한 연구, 광주보건대논문집, 1999, 24(8), 255-271.
10. 김복희 : 女性의 皮膚美容管理 知識 및 行態와 關聯要因, 박사학위논문, 경산대학교, 1998.
11. 김봉인 : 중년여성의 피부건강관리에 대한 태도와 실천행위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1999.
12. 김수남 : 毛髮의 構造와 生理. 약국, 1993, 225(6), 36-41.

13. 김수정, 이원수, 최응호, 안성구 : 모발염색으로 인한 각피의 손상과 재생 : 시간 경과에 따른 형태학적 변화, 대한피부과학회지, 1996, 34(2), 257-263.
14. 김순희 : 퍼머, 염색, 탈색 시술에 따른 두발의 역학적, 영양학적 전자현미경 관찰, 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1996.
15. 김순희 : 헤어미용시술실태와 모발건강 지식 및 지식실천에 관한 조사연구, 마산대 논문집, 1999, 21(2), 579-595.
16. 김지원 : 일부 여자대학생의 건강에 대한 지식, 태도 및 행위에 관한 연구 : 체육 계열 학과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1992.
17. 박윤기 : 탈모증의 정의와 종류, 임상약학, 1987, (8), 63-67.
18. 박정란 : 서울시내 일부 대학생의 건강에 대한 지식, 태도 및 행위에 관한 조사,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1999.
19. 서성환 : 두발화장품의 기술동향, 대한화장품학회지, 1998, 29(10), 128-141.
20. 송경아 : 일부 여성의 생활행태가 피부상태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계명대학교, 1997.
21. 원복희 : 여대생의 영양섭취실태와 철분영양 상태 및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분석 연구,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1991.
22. 윤영화, 승정자 : 일부 여대생의 혈청·소변·두발·손톱 중의 아연·구리·망간·니켈함량에 관한 연구, 한국식품영양과학회지, 2000, 29(1), 99-105.
23. 이경신, 김기남 : 대학생의 영양지식, 식태도 및 식행동에 대한 영양교육의 효과, 지역사회영양학회지, 1997, 2(1), 86-93.
24. 이금화 : 여대생의 월경주기와 빈혈 연구, 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1994.
25. 이수환 : 일부 여대생의 흡연실태와 그에 따른 요인분석,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1987.
26. 이원기, 김대수 : 세제(Shampoo)의 pH가 毛髮의 伸率에 미치는 影響, 東洋工專論文集 1983, 5(6), 435-439.
27. 이원기, 김대수 : 세제(Shampoo) pH가 毛髮引張強度에 미치는 影響, 東洋工專論文集, 1983, 5(6), 429-433.
28. 이유석 : 한국 여성의 두발 화장품 소비행동에 관한 실증적 연구, 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 1987.
29. 이인섭, 임철환 : 25세 이하 여성에서 발생한 여성형 미만성탈모증 25예에 대한 임상적 고찰, 대한피부과학회지, 1998, 36(5), 827-835.
30. 이정화, 김유찬, 박향준, 신용우, 이경규 : 원형탈모증 환자에서의 불안 우울 및 정신과적 증상에 관한 연구, 대한피부과학회지, 1997, 35(5), 837-846.
31. 임혜원 : 일부 여대생의 피부건강관리에 대한 지식, 태도 및 행위에 관한 조사연구,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1999.
32. 장성남 : 최근 10년간 피부질환의 통계적 고찰 : 1983-1992,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1994.
33. 장순영 : 여대생의 식습관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효성여자대학교, 1987.
34. 전병환, 서성준, 김병남, 홍창권, 노병인 : 한국인 여성 미만성 탈모증의 혈중 철 농도, 대한피부과학회지, 1998, 36(5), 865-870.
35. 전일선, 이무형 : 철분 결핍성 빈혈과 동반된 분절상 모발 색소이상증, 대한피부과학회지, 1996, 34(6), 430-433.
36. 정원정 : 여대생들의 피부유형에 따른 식이섭취 실태조사 및 혈장 생화학적 성분 분석, 석사학위논문, 서울여자대학교, 1999.
37. 조남중 : 成人의 毛髮中 Cadmium 含量에 關한 疫學的 研究, 박사학위논문, 전남대학교, 1983.
38. 조선진 : 일부 여대생의 비만수준 및 체중 조절행태가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1996.

39. 조시형, 정태안, 오창근, 장호선, 권경술 : 발모벽 환자의 임상 병리조직학적 관찰 및 동물실험적 연구, 대한피부과학회지, 1999, 37(7), 861-869.
40. 조용옥 : 韓國人 毛髮에 대한 研究, 석사학위논문, 1961.
41. 조혜향 : 한국 여대생들의 혈청과 두발중에 함유되어있는 구리·아연·철분함량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서울여자 대학교, 1984.
42. 채병윤 : 毛髮의 생장과 탈발(모)에 대한 고찰, 경희의학, 1999, 15(9), 229-240.
43. 최연희 : 미용실 종사자들의 두발처지에 대한 인식도와 관련요인분석, 석사학위논문, 경산대학교 보건대학원, 1999.
44. 최영진 : 시판중인 모발 염색약 중의 중금속 농도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인제대학교 보건대학원, 1998.
45. 최은영 : 건강증진모델에 기초한 여성의 피부 관리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1999.
46. 최한규, 노성욱, 서동수, 서성준, 김명남, 홍창권, 노병인, 기백석 : 원형탈모증과 안드로겐성 탈모증환자에서 생활사건 스트레스와 대처방식에 관한 연구, 대한피부과학회지, 1999, 37(6), 733-738.
47. 최현웅 : Hair Damage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산업대학원, 1974.
48. 하명희 : 여드름피부와 식습관의 관계에 관한 연구 : 부산광역시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석사학위논문, 경성대학교 대학원, 1995.
49. 한경운 : 화장품 사용에 따른 피부질환에 관한 조사연구 : 20대 30대 연령층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원광대학교 산업대학원, 1995.
50. 한설아 : 여성의 외모 관리에 대한 여성주의적 접근 : 다이어트 경험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1997.
51. 허충림 : 두피에 발생하는 접촉 피부염, 의약정보, 1992, 206(8), 32-35.
52. 홍창권 : 여성의 탈모증, 의약정보, 1992, 206(8), 61-63.
53. 홍석훈, 노석선 : 毛髮脫落의 病因 및 治療法에 대한 文獻的 考察, 대한외관과학회지, 1996, 9(1), 43-65.